

“스마트 팜으로 농업·농촌 새 미래 열 것”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터뷰

스마트 폰이나 PC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농장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팜’이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비닐하우스·축사·과수원 등에 접목해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농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8일 서면인터뷰를 통해 “스마트팜을 이용하면 노동력·에너지·양분 등을 기존 관리방식보다 덜 투입하고도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농식품부가 4711억여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ICT 융복합 첨단농업·행복한 농촌 조성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도 쌀 풍년이 들었는데 쌀값 탓에 농민들의 걱정이 크다. 쌀 수급 안정 대책은 무엇인가?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 소득 감소에 대비하여 '05년부터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직불금으로 보전하고 있어, 수확기 쌀값에 직불금을 더한 금액은 목표가격의 97% 이상이 됐다. 정부는 또 쌀 수급안정을 위해 20만에 대한 시장격리를 우선 추진 중이며, 올 말까지 쌀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쌀 관세화를 선언한 이후에도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걸 두고 걱정도 많다.

▲지난 20년간 쌀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매년 41만t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지난해 쌀 관세화 결정시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했으며, 이를 두고 일부 농민단체는 국내 쌀값 하락 등을 이유로 밥쌀용 쌀 수입을 반대하고 있다. 밥쌀 의무수입 조항 삭제는 밥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밥쌀용 쌀은 수입되더라도 국내 수요, 수급,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해 방출 시기 및 방출량 등을 결정해 국내 쌀값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하겠다.

—올해도 가뭄이 심각했다 대책은 있는가?

▲올해 정부는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 농업용수부족이 우려되는 지역 939개 지구에 755억원을 투입해 관정개발, 양수장·송수시설 설치 등 긴급 용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750개소에 443억원을 지원하여 준설사업을 하고 있다.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아무리 해도 물을 절약하지 않는다면 가뭄대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한중FTA 대응 전략은?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분야 등에 10년간 159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영세·고령농 맞춤형 복지 확대 등 개방확대에 대응해 성장정체에 있는 농업의 도약기반을 마련하겠다. 농민들은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정책 금리 추가인하, 피해보전



한중 FTA 피해보전지역

10년간 1595억 투·용자

농업용수부족 우려 939곳

관정개발·양수장 등 설치

직불제 개선, 발전불 인상 등 밥쌀용대책, 후계농 지원 확대 등 인력육성대책 등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런 농업계 요구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대중국 수출확대 방안은

▲정부는 올 수출 목표(77억불)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손잡고 생산부터 시장조사·물류·관료개혁·검역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다양한 수출 확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주요 도시별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수출업체에 맛과 포장 등 ‘현지화 관련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국 ‘청도 수출 물류기지’를 거점으로 중국 내 8개 공동물류센터를 연계한 한국 농식품 유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외 현지에서의 한류 마케팅, 프리미엄 한국 농식품 상품전(K-Food Fair) 개최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한국 농식품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 중국 온라인 쇼핑몰·유명 백화점 등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 개선을 확대하고, 기업 유통망(TV홈쇼핑·대형마트 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산 농식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다.

—취임 후 성과를 꼽는다면

▲농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효율성에 기초한 창조, 소통, 배려’의 농정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농 20만을 들춰 경영체로 육성하고, ICT 첨단기술을 보급하여 수출 경쟁력이 있는 전문화, 규모화된 전문경영체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국내 여건에 특화된 한국형 스마트팜 단형형 온실을 개발하여 스마트팜 국산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내년부터는 들춰경영체 사업을 확대하고 논뿐 아니라 주산지를 중심으로 한 반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의 사례를 볼 때 TPP 가입시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농식품부 대응 방향은

▲일본이 미국 측에 제공기로 한 쌀 TRQ 7만t은 양곡간 ‘이익의 균형’을 고려한 협상결과로서 향후 우리가 TPP에 가입하게 될 경우 쌀 분야 관련 미·일간 협상결과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상품·서비스 등 시장접근 양해 협상은 양자적으로 진행되므로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관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모든 기체결 FTA에서 ‘쌀’은 양해대상에서 제외해 왔고, 향후 진행될 모든 FTA 협상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견지해 나간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전남지역 등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복지에 대한 요구가 많고 있다. 농촌 복지 정책의 방향은

▲우리 농촌은 인구감소, 급격한 고령화, 개방 확대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복지 정책 방향을 ‘작지만 체계할 수 있는 복지’로 정하고, 따뜻한 ‘배려 농정’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농촌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지원대상자가 늘고 있고, 농지연금도 가입연령 완화 등 지속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예비 대학생 금융교실 운영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영업본부장 허승택)는 지난 8일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방문해 3학년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신용관리의 중요성과 현명한 소비생활’을 주제로 금융교실을 열었다.

농협 관계자는 “수능을 치르고 이제 예비 대학생이 된 학생들에게 바로 합리적인 경제습관을 심어주기 위해 ‘행복채움 금융교실’을 진행해 학교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 전문강사가 해당학교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금융교육은 미래 경제주체인 청소년에게 경제·금융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인 경제생활습관, 금융권 진로체험기회를 주고 있다.

이 교실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용은 곧 재산이므로 신용관리를 잘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또, 현명한 소비 방법에 대해 알게 되어서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허승택 영업본부장은 “금융교육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금융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학교 텃밭서 길러 수확한 배추

김치 담가 불우이웃에 전달

광양제철초·농협 전남본부

어린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학교 텃밭에서 직접 길러 수확한 배추로 받은 김장을 이웃과 나눴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9일 광양제철초등학교(교장 임종환) 농업체험장에서 배추 400포기와 무, 당근 등을 수확하여 광양시에 소재한 불우시설(광산특수어린이집)에 전달했다.

이날 수확한 배추와 무는 광양제철초등학교 내에 조성된 농업체험장에서 5·6학년생 100여명이 직접 재배했다.

사람의 김장채소 나눔행사와 함께 진행된 김장김치 담그기 체험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맛보며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과 농부 아저씨들의 수고와 수확의 기쁨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행사에 참여한 조유은(6년)양은 “배추를 심고 수확할 때까지의 과정이 쉽지않았지만 우리가 직접 기른 배추가 어려운 이웃에 전달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2017년까지 시설원에 4000ha·축사 700호 ‘스마트 팜’ 구축

‘ICT 융복합 첨단농업 사업’ 성과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이 강조하고 있는 ICT 융복합 첨단농업·행복한 농촌 조성 사업’은 노동력·에너지·양분 등을 기존 관리방식보다 덜 투입하고도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9일 “4711억여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ICT 융복합 첨단농업·행복한 농촌 조성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경쟁력 있는 농업과 농촌을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창조농업 희망의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스마트팜 기반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수박·파프리카·토마토 등을 재배하는 시설원예분야는 2017년까지 현대화한 온실면적(1만5000ha)의 40% 수준인 4000ha를 스마트 온실로 바꾸게 된다.

또 시설원에 4000ha, 축사 700호 등을 구축해 생산성을 30% 높일 계획이다. 또 ICT 기반 행복한 농촌 확산을 위해 창조마을 50개 곳도 만든다.

축산분야는 지난해 양돈을 시작으로 올해 양계 등 단계적으로 스마트팜 적용 대상 축종을 확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젓소·

한우 등의 생산성 향상에 로봇작업기와 자동포유기 등을 일괄 지원하는 스마트축사를 도입한다. 2017년까지 축산농가 전업농의 10% 수준인 700호까지 스마트 축사를 늘릴 계획이다.

아직 보급 초기단계인 노지 스마트팜 사업화는 대규모 과수원을 중심으로 추진해 2017년까지 600여개 농가로 확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수출재배단지 ICT 융복합 첨단온실 지원 예산을 올해 246억원에서 내년 454억원으로 늘리는 등 예산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내 제품의 상용화 수준이 낮아 비싼 외국산 제품 점유율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비용·고효율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과 보급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확산을 통해 FTA 확대 등 완전 시장 개방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으로 농가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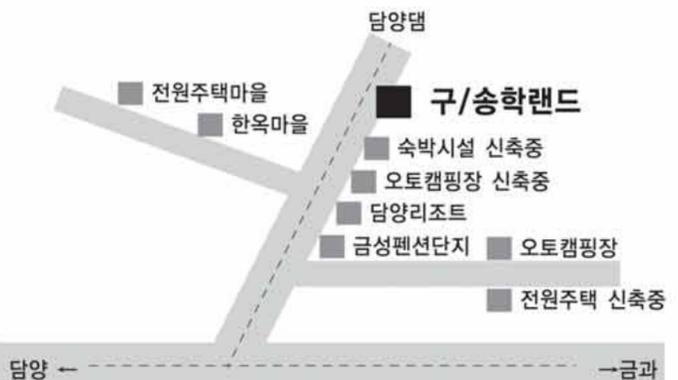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펜션·박물관 / 미술관·식당·찻집등

최고 장소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25번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1분거리
- ▶대지 2441평, 건물 882평, 임야6726평
- ▶과거, 펜션 박물관 식당 찻집 운영(구/송학랜드)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가능 / 도 관광진흥자금 유치 가능
- ▶현재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2.1%, 월219만원)
- ▶1년후 약 18억 정도 재 대출 가능
- ▶법인체 인수시 이전비 1억 정도 절약
- ▶시세/감정가 30억 정도
- ▶매매 18억 8천만원(12/31일까지 완불 조건)

펜션, 리모델링 후(약 2억정도)
연 2억이상 순수익 가능!



공동중개환영 H.010-3605-5000